

KLSI

ISSUE PAPER

제 119 호
2019- 18호
(2019.12.09.)

www.klsi.org

돌봄산업과 요양보호인력 실태

홍종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윤정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목차]

1. 들어가며
2. 사회서비스산업의 취업자 특성과 추이
3. 돌봄서비스산업의 취업자 특성과 추이
4. 돌봄서비스업의 하위 업종과 직종 취업자 추이
5. 돌봄서비스업 사업체의 특성
6.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인력 실태
7. 결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lsiedit

<요 약>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산업과 돌봄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와 추이를 성, 학력, 연령, 실근로시간, 월급여, 세부 업종, 직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서비스업조사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와 변화를 보았고,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노인돌봄 사업체의 주요 직종 종사자 수, 인력규모, 근무시간, 인건비 등도 검토하였다.

기초현황 분석결과, 최근 5년 동안 사회서비스산업은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전 산업 증가율 0.8%를 약 2배 정도 높았다. 동기간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843천명 증가하였는데, 사회서비스업은 이 중 약 38.9%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동기간 남성은 연평균 0.3% 감소한데 반해, 여성은 2.1%의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40~49세층(122만명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5세 이상에서 8.0%를 나타내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58.7%에 이르렀다. 임시근로자도 20% 이상을 유지하면서 연평균 0.8%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26.8%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의 실근로시간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30시간~50시간 미만'이 67.2%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임금수준별로 보면, 2018년 현재 '201만원 이상'이 3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51만원~200만원 이하'가 27.5%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산업 내에서 돌봄서비스업의 비중은 2014년 54.6%(2,770천명)에서 2018년 49.2%(2,657천명)으로 5.4%p 감소하였다. 사회서비스산업이 연평균 1.3% 증가하는 동안 돌봄서비스업은 연평균 0.8%씩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50% 전후를 유지하며 사회서비스산업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 1,896천명(71.4%)으로 남성보다 약 2.5배 정도 많았는데, 여성 취업자 편중 경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돌봄서비스업 취업자 중 최다 분포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인구고령화 속에서 베이붐세대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취업자의 급격한 증가도 눈에 띈다.

돌봄서비스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151만원~200만원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1만원 이상이 26.2%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취업자의 43.7%가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이다.

돌봄서비스업의 세부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

종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으로 2018년 기준으로 951천명(34.3%), 2위는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636천명(23.0%), 3위는 ‘병원’으로 595천명(21.5%)이다.

돌봄서비스업 관련 직종은 2018년 기준으로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6.6%,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6.1%, ‘간호사’ 3.6%, ‘가사 및 육아 도우미’ 2.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취업자 수 1위를 기록한 직종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로 2014~17년에 1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2위로 떨어졌다. 반면,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는 2014~17년에 계속해서 2위를 하다 2018년에 1위로 상승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2015년까지 4위였으나, 2016~18년에 계속해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조사로 살펴본 돌봄서비스업 사업체 현황을 보면,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사업체는 2006년 2,212개에서 2016년 8,193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15.7%로 성장했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10~19명, 5~9명, 50명 이상 각 사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2006년 25,688개 사업체에서 2016년 58,045개 사업체로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보였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이후 5~9명 사업체로 순위가 교체되었다.

「노인장기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사업체)의 설립유형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재가요양기관(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해당)이 2010년에 11,228개에서 2017년에 15,073개로 늘어났는데, 대부분 개인이 설립한 사업체(83.4%)이다.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78.7%에서 2017년 83.4%로 증가했다. 이어 법인사업체(영리·비영리 포함)를 보면, 2010년 19.8%에서 2017년 15.5%로 약 4.3%p 감소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가요양기관은 1%조차 되지 않는다. ‘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는 시설요양기관은 2010년 3,751개에서 2016년 5,304개로 1,553개가 증가하였다. 재가요양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지만,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며, 설립주체는 대부분 개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 주체가 설립한 시설은 2010년 36.2%에서 2017년 26.0%로 10.2%p 감소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사업체)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 2008년 125천명에서 2017년 377천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1.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요양보호사가 2017년 기준 340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도 2008년 4,195명에서 2017년 18,35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서 주목할 직종은 보건인력의 변동이다.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만성요양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

스에서 보건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인력인 간호사는 2008년 2,951명에서 2017년 2,791명으로 연평균 0.6% 감소한데 반해, 간호조무사는 동 기간 2,373명에서 9,845명으로 연평균 15.3%로 대폭 증가하였다.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별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수준을 보면, 시설의 경우 2015년까지 1,789천원이었다가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8년 기준으로 2,255천원이다. 반면, 방문요양의 경우 2016년까지 9,796원이었다가 2018년 11,937원으로 상승하였다.

돌봄산업과 요양보호인력 실태

홍종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윤정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¹⁾

돌봄산업은 상위업종으로 보면 사회서비스 산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산업 실태 파악에는 OECD 분류기준을 사용하지만, 돌봄 업종을 포함하여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을 이해하려면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산업육성 및 고용창출의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모든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육성해왔던 분야이다. 따라서 OECD 기준 보다 자세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정책사업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시장적 특성과 제도적 속성을 담고 있는 기준이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산업을 규제하는 가장 상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육성 및 지원을 담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준수하는 분류체계이다²⁾. 다만, 이 분류체계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완전하게 정합적이지

1) 본 연구는 윤정향(2017)의 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2019년 소득주도성장위원회의 [사회서비스 근로조건과 직무분석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방안] 내용을 정리한 것임.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호에서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서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3항에서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로 정의하며, 동법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① 보육 서비스, ②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③ 산림보전·관리 서비스, ④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⑥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⑦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기본 특성을 보여주는 데는 유용하다. 이 글은 통계청의 지역고용조사, 서비스업조사를 이용하여 돌봄서비스산업의 취업자 특성과 추세를 살펴본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를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인력의 규모와 근로조건을 검토한다.

[표 1]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와 표준산업분류

SSISC	KSIC(소분류)	
요양돌봄서비스업(2) 고용지원서비스업(7)	751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회서비스 관리행정(8)	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사회보장 행정(8)	845	사회보장 행정
교육 관련 서비스업(5)	851	초등 교육기관
교육 관련 서비스업(5)	852	중등 교육기관
교육 관련 서비스업(5)	853	고등 교육기관
교육 관련 서비스업(5)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5)/ 고용지원서비스업(7)/ 상담 및 재활서비스업(3)	856	기타 교육기관
상담 및 재활서비스업(3)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요양돌봄서비스업(2)/ 상담재활서비스의료업(3)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병의원(4)	861	병원
상담재활서비스의료업(3)/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병의원(4)	862	의원
공공보건 및 기타보건업(4)	863	공중 보건 의료업
상담재활서비스의료업(3)/ 상담 및 재활서비스업(3) 공공보건 및 기타보건업(4)	869	기타 보건업
요양돌봄서비스업(2)/ 주거보호서비스업(2)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합사회서비스제공업(1)/ 요양돌봄서비스업(2)/ 상담 및 재활서비스업(3) 고용지원서비스업(7)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문화 관련 사회서비스업(6)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문화 관련 사회서비스업(6)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체육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업(6)	911	스포츠 서비스업
체육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업(6)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종합사회서비스제공업(1)/ 사회봉사 등 참여지원업(7)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요양돌봄서비스업(2)/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요양돌봄서비스업(2)/	970	가구 내 고용활동

2. 사회서비스산업의 취업자 특성과 추이

사회서비스산업의 업종 특성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와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업종을 매칭하여 분석한다.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2014년 하반기 506만명에서 2018년 하반기 539만명으로 지난 5년 동안 328만명 증가하였다. 단순비중으로 보면 2014년 19.3%에서 2018년 20.0%로 0.7%p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전 산업 증가율 0.8%를 2배 정도 앞지르고 있다. 같은 기간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843천명 증가하였는데, 사회서비스업은 이 중 약 38.9%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취업자 수가 10명 증가했다면, 그 중 3~4명이 사회서비스업에서 생긴 일자리이다.

[표 2] 전체 산업과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수와 비중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산업	총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업 비중
2014하	26,247	5,067	19.3
2015하	26,519	5,206	19.6
2016하	26,746	5,339	20.0
2017하	26,744	5,357	20.0
2018하	27,090	5,395	20.0
2014~2018 증감	843	328	38.9
2014~2018 연평균 증감율	0.8	1.6	0.9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성별로 사회서비스업 취업자를 비교해보면, 지난 5년 동안 남성은 연평균 0.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여성은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 복지산업을 포괄하고 있어 여성취업자가 다수인 산업적 특성이 있는 것과 더불어, 연간증가율도 여성이 더 높아 여성일자리의 전형성이 5년 동안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2014년 이후 남성 취업자는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고, 여성취업자의 경우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성별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성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남성	1,824	1,847	1,850	1,829	1,798	-0.3
여성	3,243	3,359	3,489	3,528	3,597	2.1
전체	5,067	5,206	5,339	5,357	5,395	1.3
남성	36.0	35.5	34.7	34.2	33.3	
여성	64.0	64.5	65.3	65.8	6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2018년 현재,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40~49세로 122만명 수준이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5세 이상은 연평균 8.0%, 60~64세는 4.8%, 50~59세는 0.9%, 40~49세는 0.8% 순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30~39세는 -0.6%, 15~29세는 -0.8%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서비스산업 고령층 우세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연령별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연령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15~29세	929	925	926	909	892	-0.8
30~39세	1,084	1,071	1,070	1,078	1,057	-0.5
40~49세	1,172	1,207	1,191	1,200	1,221	0.8
50~59세	1,111	1,151	1,175	1,192	1,163	0.9
60~64세	346	379	432	434	437	4.8
65세이상	426	471	545	542	625	8.0
전체	5,067	5,206	5,339	5,357	5,395	1.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교육수준별로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4년제 대졸자가 186만명으로 가장 많고, 고졸이하가 123만명으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순위는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연평균 증감율은 대학원 이상은 2.94년제 대졸이 2.4로 고학력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교육수준별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교육수준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중졸이하	784	794	837	801	771	-0.3
고졸이하	1,203	1,237	1,285	1,275	1,234	0.5
전문대졸	785	797	795	795	797	0.3
4년제대졸	1,663	1,737	1,731	1,783	1,868	2.4
대학원+	630	641	691	702	726	2.9
전체	5,067	5,206	5,339	5,357	5,395	1.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종사상지위별로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율을 보면, 상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 58.7%에 이르렀다. 임시근로자는 20% 이상 대를 유지하면서 연평균 0.8%씩 가하여 2018년 현재 26.8%로 나타났다. 반면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등은 연평균 증감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종사상 지위별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종사상 지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명	비율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2,734	54.0	2,897	55.6	3,004	56.3	3,094	57.8	3,166	58.7	3.0
	임시근로자	1,393	27.5	1,427	27.4	1,479	27.7	1,412	26.4	1,447	26.8	0.8
	일용근로자	316	6.2	298	5.7	267	5.0	280	5.2	207	3.8	-8.1
	합계	4,443	87.7	4,622	88.7	4,750	89	4,786	89.4	4,820	89.3	1.6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03	4.0	195	3.7	187	3.5	184	3.4	193	3.6	-1.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71	7.3	337	6.5	354	6.6	337	6.3	334	6.2	-2.1
	무급가족종사자	50	1.0	52	1.0	48	0.9	50	0.9	48	0.9	-0.8
	합계	624	12.3	584	11.2	589	11	571	10.6	575	10.7	-1.6
총계		5,067	100.0	5,206	100.0	5,339	100.0	5,357	100.0	5,395	100.0	1.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의 실근로시간을 살펴보면, 2018년 현재 '3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67.2%로 가장 많고, '50시간 이상~70시간 미만'인 경우가 10.6%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감율을 보면, '1시간 이상~10시간 미만'(12.0%), '10시간 이상~30시간 미만'(5.3%), '30시간 이상~50시간 미만'(1.4%), '50시간 이상~70시간 미만'(-5.2%), '70시간 이상~100시간 이상'(-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실근로시간별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율과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실근로시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1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3.2	4.0	3.9	3.8	5.4	12.0
1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12.4	13.5	13.9	12.9	15.1	5.3
3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66.7	65.3	67.3	68.8	67.2	1.4
5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14.7	14.2	12.4	12.3	10.6	-5.2
7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3.0	2.9	2.6	2.2	1.7	-9.8
전체	5,012	5,153	5,278	5,291	5,322	1.2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2014~2017년의 결측값은 실근로시간에 무응답처리된 결과임.

사회서비스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수준별로 보면, 2018년 현재 '201만원 이상'이 3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51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27.5%, '101만원 이상~150만원 이하'는 13.7%, '50만원 이하'는 9.9%, '51만원 이상~80만원 이하'는 5.9%, '81만원 이상~100만원 이하'는 5.8%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5년 동안 1.6% 증가하였다. 또한, '151만원 이상~200만원 이하'는 10.4%, '201만원 이상'이 7.5%, '50만원 이하'는 1.9% 순으로 증가하였으나, '101만원 이상~150만원 이하'는 -10.5%, '81만원 이상~100만원 이하'는 -8.7%, '51만원 이상~80만원 이하'는 -4.6%로 확인되었다.

[표 8] 월평균임금수준별 사회서비스산업 임금근로자 비율과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임금수준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50만원이하	9.7	9.9	9.7	8.4	9.9	1.9
51만원~80만원	8.1	8.2	7.3	6.6	5.9	-4.6
81만원~100만원	9.9	8.4	7.2	6.9	5.8	-8.7
101만원~150만원	25.9	24.6	23.0	21.3	13.7	-10.5
151만원~200만원	18.2	20.3	21.4	22.8	27.5	10.4
201만원+	28.2	28.6	31.5	34.0	37.2	7.5
전체	4,443	4,622	4,750	4,786	4,820	1.6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사회서비스산업 내 하위산업은 22개 업종으로 나누어진다. 규모면에서 대표적인 업종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은 2018년 기준 636천명으로 연평균 1.9% 감소하고 있다. '병원'은 595천명으로 3.7% 늘어나고 있다.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은 155천명으로 연평균 1.3% 증가하고 있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은 951천명으로 연평균 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79천명으로 연평균 3.0% 줄어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 내 고용활동'의 경우 41천명으로 16.8% 감소하고 있다.

[표 9] 사회서비스산업 내 세부산업별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산업별	분류코드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1	699	762	791	758	636	-1.9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	90	95	103	110	132	8.0
사회보장 행정	845	4	6	4	6	6	8.4
초등 교육기관	851	441	462	453	482	451	0.4
중등 교육기관	852	339	339	350	368	353	0.8

산업별	분류코드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고등 교육기관	853	264	257	250	266	254	-0.8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23	26	24	25	22	-0.9
기타 교육기관	856	331	345	354	358	383	3.0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	14	20	20	21	22	9.5
병원	861	496	523	539	540	595	3.7
의원	862	362	339	360	366	389	1.4
공중보건의료업	863	34	35	36	32	37	1.7
기타 보건업	869	19	17	19	21	22	3.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	145	156	155	164	155	1.3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719	762	814	797	951	5.8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	72	83	79	74	86	3.6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44	57	62	60	62	7.1
스포츠 서비스업	911	153	165	163	167	163	1.3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912	144	124	120	118	121	-3.4
기타 협회 및 단체	949	246	237	246	227	235	-0.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	325	325	332	326	279	-3.0
가구 내 고용활동	970	103	71	65	71	41	-16.8
전체		5,067	5,206	5,339	5,357	5,395	1.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3. 돌봄서비스산업의 취업자 특성과 추이

가. 돌봄서비스업의 정의와 범위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이하 SSISC)의 항목 정의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업은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대상 요양보호, 단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가정·비거주 시설 보호, 아동·노인·장애인·부녀자 등 요보호자에 대한 비의료적 거주시설보호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돌봄서비스업은 ‘요양 및 돌봄서비스업’과 ‘주거보호서비스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요양 및 돌봄서비스업은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가정·비거주 시설보호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며, 주거보호서비스업은 ‘아동·노인·장애인·부녀자 등 요보호자에 의한 비의료적 거주시설 보호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다.

그런데 공식 통계자료로 제공되는 정보의 한계로 인해 ‘돌봄서비스업’을 정확히 추출하기는 쉽지 않다. SSISC는 표준산업분류의 5자리(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인 것에 반해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통계자료는 3자리(소분류) 분류기준이다. <표 2-1>이 그에 대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절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에 기초하여 재정의된 ‘돌봄서비스업’에 초점을 두고 취업자 추이와 특성을 살펴보겠다.

[표 10]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중 '돌봄서비스업' 분류표

2. 돌봄서비스업		실제 표준산업코드/ 활용가능 표준산업코드
2-1	요양 및 돌봄서비스업	
2-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 871
2-1-2	요양병원 운영업	861* / 861
2-1-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969
2-1-4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업	97000* / 970
2-1-5	고용알선민력공급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업	75110*, 75120* / 751
2-1-6	보육시설운영업	87210 / 872
2-1-7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87299* / 872
2-2	주거보호서비스업	
2-2-1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 871
2-2-2	아동·청소년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87131* / 871
2-2-3	한부모·가정폭력 피해자 등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87131* / 871
2-2-4	장애인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8712 / 871
2-2-9	그 외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87139 / 871

나. 돌봄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사회서비스산업 내에서 돌봄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4.6%(2,770천명)에서 2018년 49.2%(2,657천명)으로 5.4%p 정도 감소하였다. 사회서비스산업이 연평균 1.6%p 증가하는 동안 돌봄서비스업은 연평균 0.8%p씩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50% 전후를 유지하며 사회서비스산업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11] 돌봄서비스업 취업자 비중과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사회서비스	5,067	5,206	5,339	5,357	5,395	1.3
돌봄서비스	2,770	2,600	2,695	2,656	2,657	- 0.8
(비중)	(54.6)	(50.0)	(50.5)	(49.6)	(49.2)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성별로 봤을 때, 돌봄서비스업 취업자 중 남성은 2018년의 경우 761천명(28.6%), 여성은 1,896천명(71.4%)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5배 정도 많다. 여성 취업자로의 편중 경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표 12] 성별 돌봄서비스업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성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취업자 수	남성	840	792	803	779	761	- 2.0
	여성	1,930	1,808	1,892	1,876	1,896	- 0.4
	전체	2,770	2,600	2,695	2,656	2,657	- 0.8
비율	남성	30.3	30.5	29.8	29.3	28.6	
	여성	69.7	69.5	70.2	70.7	7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연령별로는 50~59세가 돌봄서비스업 취업자의 최다 분포를 차지하였다. 이전부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는데, 인구고령화 속에서 베이붐세대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이상 취업자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띄며, 2018년에는 40~49세보다 취업자 수가 더 많아졌다.

[표 13] 연령별 돌봄서비스업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연령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15~29세	376	354	356	349	337	- 2.2
30~39세	443	392	391	391	375	- 3.3
40~49세	567	537	519	499	504	- 2.3
50~59세	722	667	668	662	622	- 2.9
60~64세	279	274	318	312	308	2.0
65세이상	383	377	444	442	510	5.9
전체	2,770	2,600	2,695	2,656	2,657	- 0.8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교육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면, 2018년 고졸이하가 3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졸이하가 24.8%이며, 4년제는 24.2%로 3순위이다. 사회서비스산업 전체의 학력수준(최다 비중이 4년제졸)보다 평균적으로 낮다. 지난 5년 동안 드러난 경향은 ‘중졸초과~고졸이하’ 학력자들이 이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지위를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중졸이하 교육수준 취업자의 유입은 줄어들고 있으나, 4년제 졸업자의 노동시장 유입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표 14] 돌봄서비스업 교육수준별 취업자 수와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교육수준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중졸이하	756	677	721	689	659	- 2.7
고졸이하	870	825	860	846	797	- 1.7
전문대졸	457	421	407	412	428	- 1.3
4년제대졸	581	571	597	602	642	2.0
대학원+	106	105	110	106	131	4.3
전체	2,770	2,600	2,695	2,656	2,657	- 0.8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종사상지위별 돌봄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율을 보면, 2018년 상용근로자가 54.9%, 임시근로자 31.1%, 일용직 6.7%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해보면, 상용직의 상대적 비중이 6%p 이상 늘고(48.3% → 54.9%), 일용직이 한 자리수로 감소(11.9% → 6.7%)하여 종사상 지위의 고용 안정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임시근로자 비중은 31%를 유지하고 있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2014년 5.9%에서 2018년 4.1%로 감소하였다. 또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역시 2014년과 비교할 때 2018년 각각 0.2%p 감소하였다.

[표 15] 돌봄서비스업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율과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종사상 지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명	비율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1,337	48.3	1,334	51.3	1,384	51.4	1,390	52.3	1,460	54.9	1.8
	임시근로자	844	30.5	780	30.0	862	32.0	817	30.8	827	31.1	- 0.4
	일용근로자	330	11.9	267	10.3	234	8.7	247	9.3	177	6.7	- 11.7
	합계	2,511	90.7	2,381	91.6	2,480	92.1	2,454	92.4	2,464	92.7	- 0.4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70	2.5	70	2.7	62	2.3	58	2.2	61	2.3	- 2.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62	5.9	123	4.7	130	4.8	121	4.6	110	4.1	- 7.5
	무급가족 종사자	27	1.0	26	1.0	23	0.9	23	0.9	22	0.8	- 4.0
	합계	259	9.3	219	8.4	215	7.9	202	7.6	193	7.3	- 5.7
전체		2,770	100.0	2,600	100.0	2,695	100.0	2,656	100.0	2,657	100.0	- 0.8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돌봄서비스업 취업자의 실근로시간별 특성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3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취업자가 63.4%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업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시간제, 특수고용 등 매우 다양하다. 취업자 비율을 범주로 분류함에 따라 시간제와 정규직이 같은 집단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집중 양상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16] 돌봄서비스업 실근로시간별 취업자 비율과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실근로시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1시간 이상~10시간 미만	3.6	4.5	4.9	4.7	7.4	16.9
1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12.3	13.4	14.3	13.6	15.8	6.4
3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63.5	62.6	63.9	64.9	63.4	1.2
50시간 이상~70시간 미만	16.4	15.6	13.4	13.7	11.2	-6.1
70시간 이상~100시간 이상	4.1	3.8	3.5	3.1	2.2	-10.4
전체	2,470	2,583	2,672	2,632	2,634	1.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2014~2018년의 결측값은 실근로시간에 무응답처리된 결과임.

돌봄서비스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수준 특성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151만원~200만원이 30.1%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201만원 이상이 26.2%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취업자의 43.7%가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자이다. 그렇지만, 지난 5년 동안 151만원~200만원 수준이 13.3%, 201만원 이상이 11.1% 정도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17] 돌봄서비스업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수준과 연평균 증감률

(단위: 천명, %)

월평균임금수준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50만원이하	11.9	11.9	12.4	11.1	13.6	5.9
51만원~80만원	10.4	10.1	9.0	8.4	7.1	-6.9
81만원~100만원	12.3	10.3	8.6	8.5	6.6	-12.6
101만원~150만원	30.8	30.0	27.8	26.4	16.4	-12.6
151만원~200만원	17.7	19.7	21.8	23.6	30.1	16.9
201만원+	17.0	17.9	20.3	21.9	26.2	14.0
전체	2,511	2,381	2,480	2,454	2,464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4. 돌봄서비스업 하위 업종과 직종 취업자 추이

가. 돌봄서비스업 하위 업종별 취업자 추이

돌봄서비스업의 세부 산업별로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돌봄서비스업 중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으로 2018년 현재 951천명(34.3%)이다. 2위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2018년 현재 636천명(23.0%)이다. 3위는 ‘병원’으로 595천명(21.5%), 4위는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279천명(10.1%)으로 확인되었다. 5위는 ‘거주복지시설운영업’으로 155천명(5.6%)로 나타났다.

[표 18] 돌봄서비스업 하위 업종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SSISC	KSIC		2014	2015	2016	2017	2018
돌봄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699	762	790	758	636
	861	병원	496	523	539	540	595
	871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145	156	155	164	155
	872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719	762	814	797	951
	969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325	325	332	326	279
	970	가구 내 고용활동	103	71	65	71	41
전 체			2,487	2,599	2,695	2,656	2,657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돌봄서비스업 하위 업종의 성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에서 150천명으로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여성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서 가장 많은 819천명으로 나타났다. 동 업종의 남성취업자 규모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병원’취업자는 444천명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 내 고용활동’은 남녀 모두 약 20%대의 감소율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표 19] 돌봄서비스업 하위 업종별-성별 취업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성별	남성							여성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447	414	439	435	361	-86	-5.2	345	349	351	322	275	-70	-4.4
병원	139	143	130	120	150	11	1.9	395	381	409	420	444	49	2.4

성별	남성							여성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28	26	25	24	24	-4	-3.8	128	130	129	140	131	3	0.5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108	109	109	95	132	24	5.1	689	653	705	701	819	130	3.5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114	99	99	104	91	-23	-5.5	254	226	233	222	188	-66	-5.8
가구 내 고용활동	3	1	0	0	1	-2	-24.0	118	70	64	70	40	-78	-19.5
합계	840	792	803	779	761	-79	-2.4	1,930	1,808	1,892	1,876	1,896	-34	-0.4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 청년층은 '병원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11천명으로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30~39세'도 '병원업'에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다. 그 다음이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으로 122천명이다. 두 업종 모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병원업의 경우 0.3%씩 감소하고 있으며 그 폭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의 경우 5.0%씩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표 20] 돌봄서비스업 하위 업종별-15세~39세 취업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연령별	15~29세							30~39세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64	57	57	50	42	-22	-10.0	81	75	67	74	67	-14	-3.7
병원	166	172	170	173	177	11	1.6	152	137	144	141	150	-2	-0.3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15	12	10	13	10	-5	-9.6	19	19	16	20	16	-3	-3.4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106	93	99	98	90	-16	-4.0	158	138	140	131	122	-36	-5.0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25	19	18	16	19	-6	-6.6	32	21	23	24	20	-12	-9.0
가구 내 고용활동	0	0	0	0	0	0	0.0	1	1	2	0	0	-1	-100.0
합계	376	354	356	349	337	-39	-2.7	443	392	391	391	375	-68	-3.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40~49세’층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취업자가 가장 많다. 2018년의 경우 212천명이었으며 지난 5년 동안 6천명이 순증가 했다(연평균 0.6%의 증가율). 2순위는 ‘병원업’ 취업자로 128천명이며 5년 간 20천명이 늘었다. 반면, 나머지 업종은 점점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50~59세’의 취업자는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2018년 183천명)’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2018년 163천명)’에 많다. ‘60~64세’ 고령층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 113천명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가장 많은 취업자(268천명)가 있다.

[표 21] 돌봄서비스업 하위업종별-40~59세 취업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연령별	40~49세							50~59세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134	118	121	106	93	-41	-8.7	231	239	220	209	163	-68	-6.7
병원	108	108	109	112	128	20	4.3	80	74	81	83	93	13	3.1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36	38	31	29	27	-9	-6.9	62	56	60	61	61	-1	-0.3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206	204	199	193	212	6	0.7	151	139	153	156	183	32	3.9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71	63	52	55	43	-28	-11.8	144	129	133	126	108	-36	-5.6
가구 내 고용활동	13	6	6	5	2	-11	-37.4	54	30	20	26	14	-40	-23.7
합계	567	537	519	500	504	-63	-2.9	722	667	668	662	622	-100	-2.9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표 22] 돌봄서비스업 하위업종별-60세 이상 취업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연령별	60-64세							65세 이상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122	122	141	134	113	-9	-1.9	160	151	185	186	159	-1	-0.1
병원	18	21	21	21	28	10	11.7	10	12	12	11	19	9	13.7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15	19	24	26	28	13	16.9	10	12	12	16	14	4	7.0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36	39	49	50	76	40	20.5	141	149	174	167	268	127	13.7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58	54	62	60	51	-7	-3.2	39	38	44	44	38	-1	-0.5
가구 내 고용활동	30	18	21	20	13	-17	-18.9	24	15	16	19	12	-12	-12.9
합계	279	274	318	312	308	29	2.5	383	377	444	442	510	127	5.9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교육수준별로 봤을 때, ‘중졸이하’ 취업자는 2018년 기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270천명)’에 가장 많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217천명)’이 다음으로 많다. ‘고졸이하’ 취업자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268천명)’에 가장 많고,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이 뒤를 잇고 있다.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중졸이하’와 달리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44.5%, ‘가구 내 고용활동’이 32.0%,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이 4.5%, ‘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이 0.7%로 증가하였다.

[표 23] 돌봄서비스업 하위업종별- 중졸 & 고졸이하 취업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고졸이하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21	294	311	291	217	-104	-9.3	322	317	330	324	268	-54	-3.6
병원	31	31	30	26	31	0	0.0	90	84	88	89	86	-4	-0.9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34	35	34	37	31	-3	-2.3	57	59	61	60	59	2	0.7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174	165	193	187	270	96	11.6	193	187	209	193	241	48	4.5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126	112	117	109	90	-36	-8.1	17	154	148	152	127	110	49.5
가구 내 고용활동	70	41	36	38	21	-49	-26.0	4	25	24	28	16	12	32.0
합계	756	677	721	689	659	-97	-3.4	870	825	860	846	797	-73	-1.7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전문대졸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2018년 기준 179천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병원’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148천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반면 ‘4년제 대졸’인 경우 ‘병원’에서 근무하는 취업자가 258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서 일하는 취업자가 214천명으로 많았다. ‘병원’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연평균 증감률이 6.2%와 2.0%로 증가하고 있다.

[표 24] 돌봄서비스업 하위업종별-전문대졸 & 4년제 대졸 취업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교육수준별	전문대졸							4년제 대졸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58	57	58	54	51	-7	-3.2	87	90	86	82	96	9	2.0
병원	153	144	136	137	148	-5	-0.8	203	210	228	233	258	55	6.2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25	23	21	27	29	4	3.8	32	31	33	35	31	-1	-0.8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190	173	167	169	179	-11	-1.5	206	202	206	211	214	8	1.0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27	23	23	23	21	-6	-6.1	49	35	41	38	39	-10	-5.5
가구 내 고용활동	4	1	2	3	1	-3	-29.3	4	4	3	2	3	-1	-6.9
합계	581	421	407	412	428	-153	-7.4	580	571	597	602	642	62	2.6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마지막으로 돌봄서비스업 하위업종별로 대학원 졸업자를 나누어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대학원 이상 졸업자들이 ‘병원’에 취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감분도 ‘병원’이 16천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이 13천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증감률도 8.4%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돌봄서비스업 하위업종별-대학원졸 취업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교육수준별	대학원졸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분	증감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5	5	5	6	5	0	0.0
병원	56	56	56	55	72	16	5.2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8	7	5	6	5	-3	-9.0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	34	36	40	37	47	13	6.7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2	2	3	3	3	1	8.4
가구내 고용활동	0	0	0	0	0	0	0.0
합계	106	105	110	106	131	25	4.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MDIS).

나. 돌봄서비스업 내 사회서비스직종 취업자 추이

직종별 추이를 보기 위해 이시균·황규성·박세경(2013)이 분류한 사회서비스직종을 이용하여 돌봄서비스업에 속하는 사회서비스직종의 취업자 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 중 돌봄서비스업과 관련한 직종은 ‘간호사’,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가사 및 육아 도우미’로 구분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는 26.3%,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는 24.7%, ‘간호사’는 13.5%,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사회서비스직종 취업자 비율 추이

(단위: %, 천명)

	사회서비스직종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가율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0.0	0.0	0.1	0.0	0.0	-100.0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0	0.8	0.5	0.7	0.6	-9.6
241	의료진료 전문가	3.2	3.5	3.3	2.7	3.7	2.6
242	약사 및 한약사	0.4	0.4	0.4	0.4	0.5	4.9
243	간호사	11.3	11.3	12.6	13.4	13.5	3.3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4.8	5.9	5.2	5.2	5.9	4.0
246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5.0	5.4	5.6	5.7	6.2	3.8
247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6.9	26.6	26.0	26.7	24.7	-2.0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0.0	0.1	0.0	0.0	0.0	13.2
252	학교 교사	0.2	0.2	0.2	0.1	0.1	-6.7
253	유치원 교사	0.1	0.2	0.0	0.0	0.0	-13.4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1.5	1.7	1.4	1.2	1.5	-0.2
259	기타 교육 전문가	0.1	0.1	0.1	0.1	0.1	13.0
262	행정 전문가	0.0	0.0	0.0	0.0	0.0	-
273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0.1	0.0	0.1	0.0	0.0	-21.1
28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0.0	0.1	0.1	0.1	0.1	15.2
28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0	0.0	0.0	0.0	0.0	-100.0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0.1	0.1	0.1	0.1	0.0	-100.0
286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0.3	0.4	0.2	0.1	0.2	-8.4
311	행정 사무원	0.0	0.2	0.1	0.1	0.1	17.9
312	경영관련 사무원	6.5	7.2	7.3	6.6	7.1	1.6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0.0	0.0	0.0	0.0	0.0	7.1
421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21.7	22.1	24.2	24.1	26.3	3.6
432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0.1	0.1	0.1	0.1	0.1	-6.3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16.7	13.6	12.4	12.4	9.3	-11.3
	합계	1,516	1,414	1,470	1,455	1,494	-0.37

지난 5년 동안 취업자 수 1위를 기록한 5개 직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2014~17년까지 계속해서 1위를 하다가 2018년에 2위로 떨어졌다. 반면,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는 2014~17년까지 계속해서 2위를 하다가 2018년에 1위로 상승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2015년까지 4위였으나, 2016~18년까지 계속해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사 및 육아 도우미’를 보면, 2015년까지 3위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부터 계속 4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의료관련 종사자’는 5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27] 돌봄서비스업 관련 사회서비스직종 취업자 수 순위 변화

사회서비스직종 취업자	2014	2015	2016	2017	2018
간호사	4	4	3	3	3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5	5	5	5	5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	1	1	1	2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2	2	2	2	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3	3	4	4	4

5. 돌봄서비스업 사업체의 특성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특성과 환경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업체의 속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역별 고용조사가 제공하는 산업, 직종, 임금수준, 근속기간 등은 기본적인 노동시장 정보로 대략적인 사업체의 특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사업체의 규모, 형태, 경영환경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업조사’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 서비스업 부문의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조사의 모집단은 서비스업종인 ‘하수폐기원료재생업’, ‘출판영상방송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 및 수리업’,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체이다. 여기에서 모집단 사업체 수가 10개 이하인 업종, 종사자 수 50인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이상 사업체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는 2016년 자료가 최신자료이다.

가. 돌봄서비스업 사업체의 규모별 추이

돌봄서비스업 업종별-사업체규모별로 사업체 수를 나타낸 것이 <표 29>이다. 서비스업조사는 산업세세분류까지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산업소분류에서 돌봄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돌봄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업종을 제외할 경우 ‘일반병원’, ‘개인간병·유사서비스업’만 남게 된다.

먼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은 5인 미만 사업체가 약 60%, 5~9인 사업체는 약 10%대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 수는 2006년에 7,864개에서 2016년 14,482로 연평균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28] 돌봄서비스업별-사업체규모별 사업체 수와 연평균 증감률

(단위 : 개, %)

	사업체 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6	증감률
인력공급, 고용알선 업	1~4명	61.6	62.1	63.0	57.5	56.8	58.4	58.8	59.3	59.3	-0.4
	5~9명	10.1	8.3	9.2	9.4	9.4	9.5	9.9	10.0	9.9	-0.2
	10~19명	6.7	6.8	6.8	8.8	9.0	8.0	8.2	7.9	8.7	2.9
	20~49명	8.0	8.0	8.2	11.8	12.0	11.0	10.9	10.6	9.5	1.9
	50명이상	13.5	14.7	12.9	12.5	12.8	13.0	12.3	12.2	12.7	-0.7
	계	7,864	8,170	8,684	9,338	11,991	12,904	13,775	14,581	14,482	7.0
일반병원	1~4명	0.1	0.3	0.2	-	-	0.0	0.1	-	0.0	-100.0
	5~9명	0.7	0.8	1.6	0.1	0.1	0.2	0.1	0.2	0.2	-13.0
	10~19명	5.3	4.7	5.0	5.0	4.1	3.5	3.6	3.1	2.1	-9.8
	20~49명	40.0	42.1	39.0	36.8	34.2	33.1	30.2	28.8	24.3	-5.4
	50명이상	53.9	52.1	54.1	58.1	61.5	63.2	66.0	68.0	73.4	3.5
	계	1,064	1,351	1,552	1,686	2,182	2,366	2,500	2,629	2,782	11.3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4명	25.8	24.0	20.7	17.8	19.6	19.8	18.6	18.8	18.7	-3.5
	5~9명	21.9	23.4	22.4	24.5	25.4	26.7	28.3	29.8	27.6	2.6
	10~19명	19.3	20.9	23.2	24.9	24.4	23.9	23.3	22.2	24.5	2.7
	20~49명	27.8	26.7	28.3	27.3	26.0	24.6	24.4	23.8	23.5	-1.8
	50명이상	5.2	4.9	5.4	5.5	4.6	5.0	5.4	5.4	5.7	1.0
	계	2,212	2,490	3,069	3,760	5,135	5,627	6,439	7,233	8,193	15.7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4명	46.5	45.0	43.8	40.6	43.4	37.1	37.8	37.3	29.3	-5.0
	5~9명	37.4	38.4	38.9	39.5	36.3	42.9	40.9	40.6	44.2	1.9
	10~19명	13.2	13.4	13.8	15.4	15.7	15.4	16.1	16.3	18.9	4.1
	20~49명	2.5	2.5	3.0	3.6	3.9	3.7	4.1	4.6	5.8	9.8
	50명이상	0.4	0.6	0.5	0.8	0.8	0.9	1.1	1.2	1.8	18.2
	계	25,688	28,835	32,619	35,600	44,918	50,473	52,863	56,291	58,045	9.5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1~4명	25.7	21.5	19.2	19.4	17.1	20.1	20.3	16.6	22.1	-1.7
	5~9명	34.2	31.5	27.3	21.6	17.7	16.7	16.5	14.7	15.8	-8.2
	10~19명	33.9	37.0	33.8	28.8	31.5	28.8	27.9	28.7	25.3	-3.2
	20~49명	5.6	9.7	17.8	24.9	28.8	28.6	29.2	33.5	30.2	20.6
	50명이상	0.6	0.3	1.9	5.3	5.0	5.9	6.0	6.5	6.6	30.5
	계	339	381	645	1,370	2,409	2,683	3,108	3,294	3,692	30.4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증감율은 연구진이 계산함.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B3002&conn_path=13

‘병원업’ 중에서 요양병원이 속해 있는 ‘일반병원’은 2006년에 1,064개에서 2014년에 2,782개로 연평균 11.3%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기업규모로 볼 때, 50명 이상 사업체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014년 53.9%에서 2016년 73.4%로 비중이 높아졌고, 연평균 증가율도 8.0%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거주복지시설운영업’의 사업체는 2006년 2,212개에서 2016년 8,193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15.7%로 성장했다. 사업체 규모는 10~19명, 5~9명, 50명 이상 각 사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1~4명과 20~49명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2006년 25,688개 사업체에서 2016년 58,045개 사업체로 연평균 9.5%의 성장률로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이후 5~9명 사업체로 순위가 교체되었다. 거주 복지시설보다 사업체 편중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사업체의 약 99%가 50인 미만 사업체에 쏠려있다.

‘개인간병·유사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2006년 339개에서 2016년 3,692개로 연평균 30.4%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6년과 2007년 자료에서는 2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90% 이상이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20~49명 사업체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나. 돌봄서비스업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비용 추이

돌봄서비스업 하위업종을 산업세분류, 세세분류(일반병원,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로 구분하여 사업체당 매출액과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하였다. 매출액은 1년간 사업체가 경영을 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영업비용은 상품구입비, 재료비 등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과 상품판매활동 및 사업체 관리·유지에 지출된 비용으로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이다. 인건비는 조사기간 중에 유급임원, 임금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을 말하며,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한다.

[표 29]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비용

		2006	2016	증가율
고용알선업	매출액(백만원)	670,647	1,810,685	6.0
	영업비용(백만원)	526,676	1,623,714	6.6
	인건비(백만원)	327,148	400,651	11.7
	사업체 수(개)	4,617	7,830	13.3
	종사자 수(명)	16,211	28,840	2.3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145	231	5.3
	사업체당 영업비용(백만원)	114	207	6.9
	1인당 인건비(백만원)	20	14	-4.1
인력공급업	매출액	5,738,290	17,553,320	8.3
	영업비용(백만원)	5,453,816	17,109,544	8.2
	인건비(백만원)	4,162,748	11,495,164	13.2
	사업체 수	3,247	6,652	13.5
	종사자 수(명)	237,818	482,629	11.9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1,767	2,639	4.6
	사업체당 영업비용(백만원)	1,680	2,572	4.8
	1인당 인건비(백만원)	18	24	3.5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사업체별 비용과 1인당인건비는 연구진이 계산함.

먼저, 위의 <표 29>에 나타나는 ‘인력공급·고용알선업’의 하위업종인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력공급업의 매출액 규모가 고용알선업의 약 10배 정도에 이른다. 고용알선업은 사업체당 매출액이 2016년의 경우 231백만원이며, 사업체당 영업비용은 207백만원이다. 인력공급업은 2014년 사업체당 매출액 2,639백만원이며, 사업체당 영업비용

은 2,572백만원에 이른다. 고용알선업의 1인당 인건비는 14백만원인데, 인력공급업은 24백만원으로 더 높다.

두 번째, 아래의 <표 30>은 요양병원이 속해 있는 일반병원의 사업체별 매출액과 영업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사업체당 매출액은 63억으로 연평균 5.7% 정도 증가하고 있다. 사업체당 영업비용은 34억에서 56억으로 5.7% 증가했다. 1인당 인건비는 동 기간 2,4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5.3% 상승하였다.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의 1인당 인건비가 동 기간 약 600만 증가한 것과는 대조된다.

[표 30] 일반병원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비용

		2006	2016	증가율
일반병원	매출액	4,110,336	17,709,593	17.6
	영업비용(백만원)	3,632,612	15,582,742	17.6
	인건비(백만원)	1,613,547	8,781,665	20.7
	사업체 수	1,064	2,782	11.3
	종사자 수(명)	66,760	227,536	14.6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3,863	6,366	5.7
	사업체당 영업비용(백만원)	3,414	5,601	5.7
	1인당 인건비(백만원)	24	39	5.3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사업체별 비용과 1인당인건비는 연구진이 계산함.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B3002&conn_path=13

셋째, ‘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하위 3개 업종으로 다시 세분된다. 각 업종의 경영실태를 보면, ‘노인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사업체당 매출액이 2006년 5억 1천만원에서 2016년 5억 6천만원으로 약 5천만원 정도 증가했다. 1인당 인건비는 동 기간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약 200만원 정도 감소했다. ‘심신장애인 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사업체당 매출액이 7억 3천만원에서 7억 2천만원으로 약 1천만원 정도 감소하였다. 1인당 인건비는 2,3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약 900만원 증가했다. ‘기타 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사업체당 매출액이 5억 7천만원에서 5억 9천만원으로 약 2천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사업체당 영업비용은 5억 6천만원에서 5억 9천만원으로 약 3천만원 정도 늘어났다. 1인당 인건비는 2천 4백만원에서 3천 3백만원으로 약 9백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1] 거주복지시설운영업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비용

		2006	2016	증가율
노인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매출액(백만원)	538,841	3,284,208	21.0
	영업비용(백만원)	546,626	3,145,948	23.3
	인건비(백만원)	331,988	1,957,465	22.2
	사업체 수(개)	1,047	5,807	21.5
	종사자 수(명)	16,511	108,922	21.8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515	566	1.1
	사업체당 영업비용(백만원)	522	542	0.4

		2006	2016	증가율
	1인당 인건비(백만원)	20	18	-1.2
심신장애인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매출액(백만원)	457,055	973,174	8.8
	영업비용(백만원)	445,656	961,822	8.9
	인건비(백만원)	303,360	655,347	8.9
	사업체 수(개)	620	1,344	9.0
	종사자 수(명)	13,282	20,605	5.0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737	724	-0.2
	사업체당 영업비용(백만원)	719	716	0.0
	1인당 인건비(백만원)	23	32	3.7
기타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매출액	310,608	621,389	8.0
	영업비용(백만원)	307,650	616,692	8.0
	인건비(백만원)	180,055	346,581	7.5
	사업체 수	545	1,042	7.5
	종사자 수(명)	7,656	10,575	3.7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570	596	0.5
	사업체당 영업비용(백만원)	564	592	0.5
	1인당 인건비(백만원)	24	33	3.8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사업체별 비용과 1인당인건비는 연구진이 계산.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B3002&conn_path=I3

넷째,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은 ‘보육시설운영업’과 ‘기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보육시설운영업은 사업체당 매출액이 2006년 1억 1천만원에서 2016년 2억 6천만원으로 약 1억 5천만원 증가했다. 1인당 인건비는 같은 기간 동안 1,1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약 700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기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은 사업체당 매출액이 2006년 3억 8천만원에서 2016년 3억 6천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1인당 인건비는 동 기간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표 32]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비용

		2006	2016	증가율
보육시설 운영업	매출액(백만원)	2,492,110	10,362,756	17.2
	영업비용(백만원)	2,125,372	9,052,988	17.5
	인건비(백만원)	1,449,439	5,397,946	15.7
	사업체 수(개)	21,607	39,220	6.8
	종사자 수(명)	127,302	307,923	10.3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115	264	9.6
	사업체당 영업비용(백만원)	98	231	9.9
	1인당인건비(백만원)	11	18	4.9
기타 비거주복지 서비스업	매출액	1,552,961	6,873,887	18.0
	영업비용(백만원)	1,544,782	10,341,757	23.5
	인건비(백만원)	716,574	3,103,785	17.7
	사업체 수	4,081	18,825	18.5
	종사자 수(명)	39,660	260,538	23.3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381	365	-0.5
	사업체당 영업비용(백만원)	379	549	4.2
	1인당인건비(백만원)	18	12	-4.5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사업체별 비용과 1인당인건비는 필자 계산.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B3002&conn_path=I3

다섯째,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은 사업체당 매출액과 인건비가 돌봄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낮게 산출되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2006년 2억 1천만원에서 2016년 3억만원으로 약 9천만원 증가했으며, 1인당 인건비는 2006년 1천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표 33]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비용

		2006	2016	증가율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매출액	72,508	1,137,654	35.8
	영업비용(백만원)	62,216	1,023,511	36.5
	인건비(백만원)	32,445	652,583	39.6
	사업체 수	339	3,692	30.4
	종사자수(명)	3,110	70,623	41.5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214	308	4.1
	사업체당영업비용(백만원)	184	277	4.7
	1인당인건비(백만원)	10	9	-1.3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사업체별 비용과 1인당인건비는 필자 계산.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B3002&conn_path=13

6.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인력 실태

사회서비스산업 중에서도 돌봄서비스업은 정부의 사회서비스산업 육성정책과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이어왔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는 해당 산업의 환경변화와 인력수요 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윤정향, 2017). 아래 설명들은 돌봄서비스업 중에서도 지난 몇 년간 가장 크게 성장해온 노인돌봄에 초점을 두고 특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사업체수와 인력 실태를 살펴본다.

가. 노인돌봄기관 설립유형별 사업체 수

「노인장기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사업체)의 설립유형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재가요양기관(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해당)이 2010년에 11,228개에서 2017년에 15,073개로 늘어났는데, 대부분 개인이 설립한 사업체(83.4%)이다. 비중을 보면, 2010년 78.7%에서 2017년 83.4%로 증가했다. 이어 법인사업체(영리·비영리 포함)를 보면, 2010년 19.8%에서 2017년 15.5%로 4.3%p 감소하였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가요양기관은 2017년 현재 1.0%조차 되지 않는다.

[표 34] 장기요양기관 설립유형별 사업체 수

(단위: 개, %)

설립구분	2010년			2017년		
	계	재가	시설	계	재가	시설
계	14,979	11,228	3,751	20,377	15,073	5,304
지자체	1.4	1.0	2.8	1.0	0.7	1.9
법인	23.9	19.8	36.2	18.2	15.5	26.0
개인	74.2	78.7	60.8	80.4	83.4	71.8
기타	0.4	0.5	0.2	0.4	0.4	0.3

*자료: 통계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현황].

‘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는 시설요양기관은 2010년 3,751개에서 2016년 5,304개로 1,553개 증가하였다. 재가요양기관 보다 상대적 비중이 적지만,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며 설립 주체는 대부분 개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 주체로 설립한 시설은 2010년 36.2%에서 2017년 26.0%로 10.2%p 감소하였다.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도 같은 기간 2.8%에서 1.9%로 0.9%p 감소하였다.

나. 장기요양기관 근무인력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사업체)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 2008년 125천명에서 2017년 377천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요양보호사가 2017년 기준 340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도 2008년 4,195명에서 2017년 18,35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5] 장기요양기관 근무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률
계	125,334	350,591	473,944	491,797	253,115	274,243	292,889	324,946	344,242	377,242	11.6
사회복지사	4,195	6,313	7,136	7,347	6,751	7,506	11,298	13,923	14,682	18,535	16.0
의사(족탁포함)	1,034	1,191	1,373	1,488	1,142	1,233	1,324	1,415	1,683	2,198	7.8
간호사	2,951	3,617	3,370	3,106	2,735	2,627	2,683	2,719	2,675	2,791	-0.6
간호조무사	2,373	4,379	5,500	6,303	6,560	7,552	8,241	9,099	9,080	9,845	15.3
치과위생사	23	19	17	7	7	4	5	4	5	7	-11.2
물리(작업)치료사	1,002	1,393	1,490	1,608	1,626	1,740	1,813	1,952	1,974	2,024	7.3
요양보호사	102,456	330,220	454,921	471,875	233,459	252,663	266,538	294,788	313,013	340,624	12.8
영양사	-	-	-	-	835	918	987	1,046	1,130	1,160	-
요양보호사취득유예	11,300	3,459	137	63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여기서 주목할 직종은 보건인력의 변동이다.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만성요양 환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보건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를 담당할 대표적인 전문인력인 간호사는 2008년 2,951명에서 2017년 2,791명으로 연평균 0.6%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는 2008년 2,373명으로 간

호사보다 적었으나, 2017년 현재 9,845명으로 연평균 15.3% 대폭 성장하였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

다. 핵심 장기요양인력 근무시간과 임금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의 월 근무시간별 근무인원과 전일근무환산인원을 보면 아래 < 표 34 > 와 같다. 요양보호사는 2015년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원이 76,442명이었다가 2017년 82,050명으로 근무인원이 5,608명이 증가하였다. 전일근무환산인원도 동일하게 증가하였다. 160시간 미만 근무 현황을 보면, 2015년 129,902명에서 2017년 160,989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일근무환산인원은 동 기간 58,009명에서 71,639명으로 13,630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사의 경우 2015년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원이 9,665명에서 2017년 11,128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일근무환산인원을 보면, 유사하게 2015년 9,665에서 2017년 11,128명으로 1,463명 증가하였다. 160시간 미만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074명에서 2017년 1,330명으로 256명 증가하였다. 전일근무환산인원은 2015년 506명에서 2017년 543명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월 근로시간 대비 장기요양 관련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1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인력 충원이 필요해 보인다.

[표 36] 장기요양기관 근무시간 현황: OECD 기준

직종별	월 근무시간별	2015		2017	
		계(재가+ 시설)		계(재가+ 시설)	
		근무인원(명)	전일근무환산인원(명)	근무인원(명)	전일근무환산인원(명)
요양보호사	160시간 이상 근무	76,442	76,442	82,050	82,050
	160시간 미만 근무	129,902	58,009	160,989	71,639
간호사	160시간 이상 근무	9,665	9,665	11,128	11,128
	160시간 미만 근무	1,074	506	1,330	543
합계		217,083	144,622	255,497	165,35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OECD 기준 장기요양 근무인력 현황.

- 1)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2급 포함.
- 2) 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포함.
- 3) 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 4) 시설: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5) 전일근무환산인원: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인원 수 +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인원의 총 근무시간/160

장기요양기관별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수준을 보면, 시설의 경우 2015년까지 1,789천원이었다가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기준 2,255천원이다. 반면, 방문요양의 경우 2016년까지 9,796원이었다가 2018년 11,937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참고로 상기 인건비는 수가 상에 반영되어 있는 종사자 인건비이며, 실 지급 인건비를 의미하지 않는다.

[표 37]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영양보호사 인건비 수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계	11,585	11,585	11,643	12,178	14,192	5.2
시설 (월급, 천원)	1,789	1,789	1,847	1,980	2,255	6.0
방문요양 (시급, 원)	9,796	9,796	9,796	10,198	11,937	5.1

*자료: 보건복지부

7. 결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사회서비스산업과 돌봄서비스업의 취업자수와 추이를 성, 학력, 연령, 실근로시간, 월급여, 세부 업종, 직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서비스업조사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업의 사업체규모와 변화를 보았고,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노인돌봄 사업체의 주요 직종 종사자수, 인력규모, 근무시간, 인건비 등도 검토하였다.

기초 현황 분석 결과, 최근 5년 동안 사회서비스산업은 연평균 증가율 1.6%로 전 산업 증가율 0.8%를 약 2배 정도 앞지르고 있다. 동기간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843천명 증가하였는데, 사회서비스업은 이 중 약 38.9%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동 기간 남성은 연평균 0.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여성은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18년 현재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40~49세층(122만명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5세 이상에서 연평균 10.1%를 나타내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으며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 58.7%에 이르렀다. 임시근로자도 20% 이상을 유지하면서 연평균 0.8%씩 증가하여 2018년 현재 26.8%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산업 취업자의 실근로시간을 살펴보면, 2018년 현재 ‘3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67.2%로 가장 많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수준별로 보면, 2018년 현재 ‘201만원 이상’이 3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51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27.5%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산업 내에서 돌봄서비스업의 비중은 2014년 54.6%(2,770천명)에서 2018년 49.2%(2,657천명)으로 5.4%p 감소하였다. 사회서비스산업이 연평균 0.3% 증가하는 동안 돌봄서비스업은 연평균 0.8%씩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50% 전후를 유지하며 사회서비스산업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 1,896천명(71.4%)으로 남성보다 약 2.5배 정도 많다. 여성 취업자로의 편중 경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돌봄서비스업 취업자의 최다 분포를 차지한다. 이전부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는데, 인구고령화 속에서 베이붐세대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취업자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다.

돌봄서비스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수준 특성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151만원~200만원이 30.1%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201만원 이상이 26.2%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취업자의 43.7%가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이다.

돌봄서비스업의 세부 산업별로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으로 2018년 현재 951천명(34.3%)이다. 2위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으로 2018년 현재 636천명(23.0%)이다. 3위는 '병원'으로 595천명(21.5%)이다.

돌봄서비스업 관련 직종은 2018년 기준으로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6.6%,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6.1%, '간호사' 3.6%, '가사 및 육아 도우미' 2.1% 순으로 상위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취업자 수 1위를 기록한 직종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로 2014~17년까지 1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2위로 떨어졌다. 반면,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는 2014~17년까지 계속해서 2위를 하다 2018년에 1위로 상승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2015년까지 4위였으나, 2016~18년까지 계속해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조사로 살펴본 돌봄서비스업 사업체 현황을 보면,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사업체는 2006년 2,212개에서 2016년 8,193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15.7%로 성장했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10~19명, 5~9명, 50명 이상 각 사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은 2006년 25,688개 사업체에서 2016년 58,045개 사업체로 연평균 9.5%의 성장률로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이후 5~9명 사업체로 순위가 교체되었다.

「노인장기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사업체)의 설립유형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재가요양기관(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해당)이 2010년에 11,228개에서 2017년에 15,073개로 늘어났는데, 대부분 개인이 설립한 사업체(83.4%)이다. 그에 대한 비중을 보면, 2010년 78.7%에서 2017년 83.4%로 증가했다. 이어 법인사업체(영리·비영리 포함)를 보면, 2010년 19.8%에서 2017년 15.5%로 4.3%p 감소하였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가요양기관은 2017년 현재 1%조차 안 된다. '거주복지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는 시설요양기관은 2010년 3,751개에서 2016년 5,304개로 1,553개가 증가하였다. 재가요양기관 보다 상대적 비중이 적지만,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며 설립주체는 대부분 개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 주체로 설립한 시설은 2010년 36.2%에서 2017년 26.0%로 약 10.2%p 감소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사업체)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 2008년 125천명에서 2017년 377천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1.6%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요양보호사가 2017년 기준 340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0.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도 2008년 4,195명에서 2017년 18,35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직종은 보건인력의 변동이다. 고령화심화로 인해 만성요양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보건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전문인력인 간호사는 2008년 2,951명에서 2017년 2,791명으로 연평균 0.6% 감소한데 반해,

간호조무사는 동 기간 2,373명에서 9,845명으로 연평균 15.3% 대폭 성장하였다.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정착하였음을 보여준다.

장기요양기관별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수준을 보면, 시설의 경우 2015년까지 1,789천원이었다가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기준 2,255천원이다. 반면, 방문요양의 경우 2016년까지 9,796원이었다가 2018년 11,937원으로 상승하였다.

[참고문헌]

- 박세경 외(2016),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정향(2017), “사회서비스의 인력수요 분석”, 이시균 외,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16-2026 中], 한국고용정보원, 2017.
- 윤정향·박용철·홍종윤, 2019, [사회서비스 근로조건과 직무분석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방안], 수도권성장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발간예정).

폰 트 제 공

본 이슈페이퍼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명조체, 나눔고딕체, 나눔고딕(Extra Bold)체,

우아한형제들에서 제공한 배달의민족 을지로체, 주아체,

한글과컴퓨터사에서 제공한 함초롬바탕체

가 적용되어 있습니다.